

# 안동권문의 명예를 지킨 학림공 권방 선생 묘소 탐방

## 학림공의 공적 기리는 사업은 송조정신의 실천



학림공 권방 묘소



20여년 동안 아무런 대가없이 학림공 묘소를 돌본 권여환씨(오른쪽)를 권해국 회장이 격려하고 있다.

시조 태사공 묘역을 지켜낸 선조는 학림공(鶴林公) 권방(權防, 추밀공파, 28세) 선생이다. 학림공 권방은 1740년 윤6월 26일에 태어났다. 12세에 ‘토서설土鼠賦’과 ‘제익수인문祭瀟水文’을 지었는데 문리가 뛰어났다. 24세(1763, 영조 39)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는데 어느 날 선비로 태어나 과거 급제에만 몰두하는 자신이 한심스럽다고 탄식하였다. 그 길로 당대의 유종(儒宗) 대산(大山) 이상정(李家靖, 1711-1781)을 찾아가 배움을 청했다. 대산 이상정을 통해 영남학맥을 이었다. 28세(1767)에는 석재현

관(釋菜獻官)이 되었는데 이 때 시가하는 자들로부터 무고를 받아 하동으로 유배를 갔으나 이듬해 풀려났다. 1769년에는 부친이 반노(叛奴: 상전을 배반한 종)에게 무함을 당하여 평안도 위원(渭原)으로 가게 되자 공이 모시고 가서 지성으로 봉양하자 외지 사람들이 감화되어 그를 높이고 추송했다. 1년 만에 돌아와 거처를 학북(鶴北)의 여은동(餘隱洞)으로 옮겨 문을 열어 은동(餘隱)으로 옮겨 문을 열어 달고 글을 읽으며 뜻을 구하였다. 1783년(정조7)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부정자를 거쳐 1784년에는 소령원수(昭寧園守)에 제수되

었다. 1787년에는 종부주부(宗簿主簿)에 임명되었다. 12월 창릉령(昌陵令)으로 옮겼다. 1792년에는 감찰에 임명되었으며 마침 적신(賊臣) 유성환과 윤구종의 사건이 발생해 영남 사대부들과 함께 만인소(萬人疏)를 올렸다. 동년 6월에 아사(亞使)로 완영(完營)에 부임하였다. 1793년 병조좌랑에 제수되었으나 사퇴하였다. 학가산에 기거하며 자연을 벗 삼아 학문과 덕행 수양에 전념하였다. 1807년에는 거듭 완영의 아사직을 내렸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이듬해(1808) 69세로 타계하였다.

부인은 예천 권씨 권문해(權文海, 1534-1591, 大東韻府群玉의 저자)의 후손이다. 묘갈명에는 부인의 묘소는 집 오른쪽 해(亥)향(북서쪽)을 등진 언덕에 자리한다고 적혀 있다. 아들 육(楡)은 약관도 되기 전에 죽었다. 아들이 없어 북야공파 종의공(忠毅公) 6세손 해운(海運)의 아들 검(楨)을 후사로 입양했다. 아들 검의 묘소는 학림공 부인 예천권씨 묘소보다 마을 위쪽에 위치한다.

문집으로는 문인 권규도(權奎度)가 학림공의 유문(遺文)을 수집하여 11권 6책으로 간행한 학림집

(鶴林集)이 있다. 학림집은 영남지방 사대부 문집들 중에서도 연작시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학림집 목판본 278판은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림공은 안동권씨 족보 갑인보(1734, 영조10)를 편찬하고 서문을 지었으며 태사묘작헌의절(太師廟酌獻儀節)을 정한 공이 있다.

학림공의 묘소는 학가산(鶴駕山, 882m) 국사봉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다. 필자는 추향제 하루 전 20일 새벽에 수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안동에 도착해 학가산 바로 아래 마을인 재품리 창포마을에 도착했다. 안동시 서후면 재품리 마을 어귀에서부터 이집 저집 물어 물어 가던 중 학림공 선조께서 도우셨는지 20여 년 동안 학림공과 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일가(一家)라는 이유만으로 학림공 묘소를 돌보고 있다는 권여

환(權汝煥, 별장공파, 36세)씨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에 의하면 학림공 묘소는 처음에 임흥환씨라는 분이 관리하다 사망하자 그 뒤를 이어 오복석(생존, 90여세)씨라는 분이 관리했다고 한다. 그러나 연로하여 묘소관리가 힘들게 되자 권여환씨 사촌 동생 권귀환(權貴煥)씨가 지극 정성으로 돌보아 갑작스런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권여환씨가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어지간한 정성으로는 쉽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학가산을 오르는 길은 너무나 가팔랐다. 재품리 뒷마을인 천주마을을 지나 학가산 입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고 하기에 묵직한 제물(祭物) 1박스를 들고 동네 뒷산 오르듯 오르면 학림공이 후손들을 급방 허락해 주는 줄 알았다. 그런데 오르고 또 올라도 학림공은 후손을 맞이해 주지 않았다. 가쁜 숨을 몇 번이나 몰아쉬고

학가산 8부 능선쯤 오른 뒤에서야 학림공을 볼 수 있었다. 묘소는 생전의 명성에 비해 너무나 초라했다. 대계(大溪) 이주정(李周禎)이 찬한 묘갈명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 묘비하나 세울 수 없었는지 궁금하기만 했다. 학가산의 학(鶴)이 되어 학림(鶴林)을 이루고 있는 학림공이 혹시 날지 못할까봐 무거운 비석을 세우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묘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에도 안동권문의 시조 묘역을 지켜냈다고 이야기만 무성하지 변변한 공적비 하나 없지 않은가. 후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제물을 진설한 후 막걸리 한잔을 올리니 절을 올렸다. 만감이 교차했다. 산을 내려와 학가산을 돌아보며 권여환씨에게 산이 상당히 높다고 했더니 그때야야 안동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알려 주었다.

대중회에서는 앞으로 안동권문의 명예를 지킨 학림공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림공과 관련된 유물이나 문집, 사료 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중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란다. 또한 권여환씨는 학가산에 위치한 학림공 묘소를 방문하는 족친들에게 직접 안내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학림집 목판본(한국국학진흥원 보존)



21×52cm, 10행20자

편집국장 권형완

### 안동권문과 영천의 인문정신, 찾아가는 역사박물관



권응수 장군

지난 11월 5일 11시 영천시는 국회의원회관 2층 전시관에서 권철승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지역구 영천)과 김두관 국회의원 그리고 최기문 영천시장, 안동권씨 대중회 권영성 상임부회장과 권경환 안동권씨 영천지역총친회장, 권혁택 권응수기념사업회 회장, 권오준 청년회 회장, 권병일 권응수기념사업회 총무이사 등을 비롯한 안동권씨 영천지역총친회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역사박물관”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안동권씨 영천지역총친회 회원들은 새벽부터 대형 버스 1대로 대거 참석하였다. 이만희 국회의원과 권철승, 김두관 국회의원 등 십여 명의 국회의원들은 “경상북도 숨은 보물 영천시” 행사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고 또 전시회 당일에도



최기문 영천시장, 김두관국회의원, 지봉스님, 권영성 상임부회장, 이만희국회의원(왼쪽부터).

참석하여 대회가 성황리에 거행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날 영천시에서 아심차게 준비한 역사적 인물인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 시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권응수 장군이였다. 영천시는 이를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의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 연구용역”을 통해 역사적 사료를 근거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준비한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창의(倡義)한 안동권씨 선조들은 권응수 장군을 비롯하여 총 22명이었다. 이 중 21명이 모두 선무공신으로 각각 책록되었다고 한다. 권응수 장군 선무공신 2등, 권국립 등 2명 선무원종공신, 권응평 등 2명 선무원종공신 1등, 권덕성 등 6명 선무원종공신 2등, 권응전 등 10명 선무원종공신 3등이었다. 또한 “육지에서서는 권을 행주전투와 권응수의 영천성 수복전투가 사람의 뜻에 차는 전투였다”(선조실록 36년 계묘 2월 12일)는 선조의 말을 강조하고 있었다. 영천의 뛰어난 인물로는 포은 정

몽주와 화약의 처음 만들었던 최무선 등이 문(文)과 무(武)를 대표했다. 양촌 권근은 태종에게 수성(守成)할 때는 절의 있는 선비를 포창(褒賞)해야 한다면서 정몽주를 포창할 것을 권고한다.(태종실록 1년 1월 14일) 이로써 정몽주는 간신에서 충신의 화신으로 거듭나게 되고 한국정신문화의 한 축을 이루게 된다. 이뿐만이 최무선이 화약을 만들어 국가의 공을 세웠으니 그 아들을 사용할 것을 건의한다.(태종실록 1년 윤3월 1일) 이처럼 영천의 문무를 대표하는 인물과 안동권문과는 밀접한 인연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천은 조선왕조 수성(守成)의 정신문화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영천시는 활자조판방식으로 상업용 일간신문인 ‘인쇄조보’를 1577년 세계 최초로 만든 지역이라고 자랑스럽게 전시했다. 이는 1660년 공인된 세계 최초의 일간신문 라이프짜저 자이동(독일)보다 83년이나 앞선다는 것이다. 영천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편집국장 권형완



안동권씨 영천지역총친회

www.semyung.ac.kr



# 대학원의 참대학 세명경대!

## 학생경험중심교육을 세상에 포격치다





**경영행정복지대학원 특별과정 안내 민송CEO 과정**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복지대학원 특별과정은 지난 1996년 8월 제1기 고위관리자과정 모임을 시작으로 2006년 8월 10기 수료까지 총 443명의 수료인원을 배출하였으며, 다변화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도자 양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신규과정으로 민송CEO과정을 개설 하였습니다.

민송CEO과정은 본교 설립자이신 故 兪松 권영우 박사님의 교육이념을 받들어 지역사회의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최고 경영자 및 고위행정관리자를 교육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본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8년 3월 현재 제2기 과정에 4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우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